



힙합 1부 (hiphop)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음악상식

본 내용은 팝 컬럼니스트 이양일 저 '팝 레슨 121' 책자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면 관계상 약간의 수정 증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힙합은 미국 뉴욕 브롱스에서 생겨난 거리 문화로 흑인 음악적 요소와 함께 엠씨잉/랩핑, 디제잉/스크래칭, 브레이크 댄싱, 낙서하기 요소에 부수적으로 샘플링, 비트박스, 줄넘기까지 포함하는 독특한 미국 흑인 음악문화다.

랩이 핵심인 힙합 뮤직은 그냥 힙합으로도 불리고 때로는 랩과 같은 의미로도 통용된다. 그렇다고 랩이 힙합 음악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힙합의 의미는 미국흑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사투리가 음악적인 문화아이콘으로 정착된 것이다. 힙합이란 말의 어원을 찾기는 쉽지 않으나 Hip의 의미는 원래 '영덩이'지만 미국흑인들과 히스패닉들 사이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 또는 '열렬한 재스 팬'이라는 뜻의 힙스터Hipster에서 나왔고 Hop은 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흥겹게 춤추며 논다'는 의미로 통하는 것으로 미루어 힙합의 언어적 의미는 그들 사이에서 '새 유행을 따르며 멋지게, 신이 나게 사는 젊은 세대들'이란 속어가 자연스럽게 도시 젊은이들의 문화와 음악 장르 명칭으로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힙합 음악의 가사 속에는 미국흑인 젊은이들만이 즐겨 쓰는 새로운 사투리나 속어, 은어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그라인드Grind는 '돈 벌려고 허 빠지게 일 한다', Cake, Cheese, Paper는 모두 '돈'을 의미하고 Ganjas(인도 대마)는 '대마초', Fugazy는 '가짜', Air-out은 '충격 살해', 5-0는 '경찰', 숫자 187은 '살인(새 무열 엘, 잭슨의 갱 영화에도 나오는 경찰의 살인을 의미하는 코드 넘버)', Greep은 '멍청이짓', Bone이나 Cut은 '성교', Cold는 '고품질', Badonkadonk는 '흑인 여자의 큰 엉덩이', Bounce는 '떠난다, 쫓아내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1970년대 후반 흑인 그룹들이 힙크나 소울 음악을 구사하며 그 속에 랩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랩과 함께 힙합 뮤직의 길이 열렸고 그것은 미국흑인들의 사회,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힙합은 미국흑인의 음악적 요소와 함께 엠씨잉Mcing/래핑Rapping, 디제잉Djing/스크래칭Scratching, 브레이크 댄싱Break

dancing, 그리고 그래피팅Graffitiing이라는 4가지 큰 요소를 품고 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좋은 곡 따다 쓰기Sampling'와 '비트박스 넣기Beatboxing', 그리고 그들의 거리문화중 하나인 '쌍 줄넘기Double Dutching'도 힙합음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들이다.

힙합은 1970년대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브롱스Brongs의 가난한 흑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흑인동네 젊은이들의 간소한 파티에서 DJ들이 2개의 턴테이블을 이용, 기묘한 스크래칭과 흥겨운 퍼커션 박자로 흥을 돋우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샘플링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된 드럼 머신의 등장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다.

특히 턴테이블 기술은 브레이크댄스와 함께 디제이가르게 선율에 맞춰 랩핑을 하거나 노래하는 스타일인 자메이칸 토스핑Jamaican Toasting 보컬스타일과 함께 발전했다.

자메이칸 토스핑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자메이카의 프로듀서와 디제이가 함께 유행하는 레게 공연 무대에서

디제이가 서정적인 찬미 스타일의 리드미컬한 라임을 넣어주는 형태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자메이카 출신의 토스핑 전문 뮤지션 디제이 쿨 HercDJ Kool Herc에 의해 뉴욕 퀸스 지역으로 전해져 랩과 힙합 음악의 기초를 닦는데 일조했다.

랩핑 스타일은 가수들이 악기나 신시사이저 비트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켰는데 그 초기적 가수들로는 카리브 출신의 DJ Kool Herc, 미국의 리듬앤블루스 싱어 Kurtis Blow, 그룹 Grandmaster Flash & The Furious Five 등을 꼽는다.

대체적으로 이 초기의 힙합을 '올드 스쿨 힙합'으로 간주한다면 힙합 뮤직의 두 번째 유행 물결은 1984년경 Run-D.M.C.와 LL Cool J.의 초기적 레코드로 시작된 '뉴 스쿨 힙합'의 대두였다.

이어서 힙합 뮤직의 한 장르로 갱스터 랩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도심에 사는 흑인 젊은이들의 빈곤과 폭력적인 생활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스타일이었다. **DK**

2부로 이어집니다

음악명소 音樂

'바바리바'

음악이 그리운 날이면 여의도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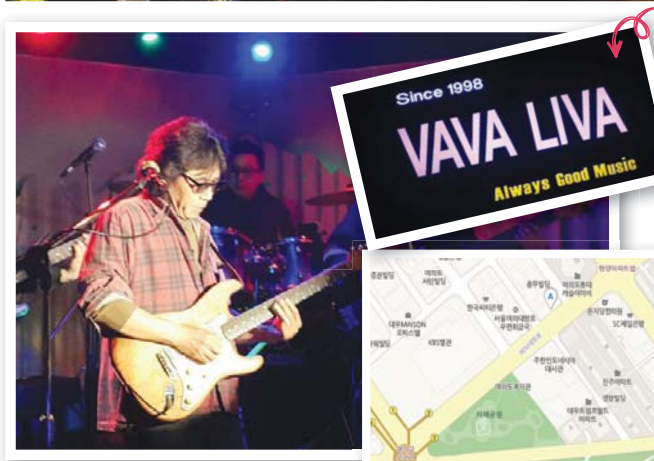
진정 수준 높은 음악을 듣고 싶다면 LIVE CAFE '바바리바'를 찾아오시라.

그리 넓지 않은 실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고 사양의 앰프를 통해 나오는 라이브 음악에 몸을 맡기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을 듯싶다.

여의도 KBS별관 근처 인도네시아 대사관 길 건너 경도빌딩 지하에 있는 라이브 카페 '바바리바'는 1998년 문을 연 이래 황중음(와이키키 브라더스), 기타리스트 최훈, 최진영 밴드(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세인트 소울 밴드, 최원식 (현 김창환 밴드 베이스 주자), 손지혜, 표명주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무대를 지켜 왔다.

현재는 그룹 부활의 리드싱어 정단을 비롯하여 이병문(색스폰, 보컬 - 전 시나위 싱어), 김국찬(퍼커션, 보컬 - 김국찬과 귀재들 리더), 정소연(피아노, 보컬 - KBS합창단 출신), 기타리스트 김광석,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등이 고정 출연 중이다.

근처에는 유명 맛집들도 몰려 있어 저녁 식사 후 들르기 십상이다. 그리고 '바바리바'만의 부담없는 가격대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DK**



- *창립일 1998.12.5
- *초대 뮤지션 밴드 황중음(와이키키 브라더스)/기타리스트 최훈
- *최진영밴드(조용필과 위대한탄생)
- *세인트 소울(밴드) 베이스 최원식 (현 김창환밴드 베이스 주자)
- *손지혜
- *표명주의 다수
- 현 출연자
- *정단(부활 리드싱어)
- *이병문(전 시나위 싱어)/색스폰,보컬
- *김국찬(김국찬과 귀재들 리더)/ 퍼커션,보컬
- *정소연(KBS합창단 출신) / 피아노,보컬
- * 기타리스트 김광석
- *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